

“농작업 사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마을·단체 신청하세요”

화순군, 내달 5일까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

1개소 선정해 3천만 원 지원... “인적·경제적 손실 절감 기대해”

화순군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5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1개소를 선정,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농작업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마을과 단체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 공간의 안전조치가 필요하거나, 농업 활동에 취약한 여성 농업인이 많은 곳으로 사업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면 가능하다. 안전 점검과 진단·조치 전문가 컨

설팅, 안전 장비·안전 조치 지원, 안전 지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농업 기계와 장비, 마을 농로 포장 등 사업 내용에서 제외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계 서류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읍·면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면 된

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농작업 환경에 대한 폭넓은 상황 인식과 개선을 통한 예방 강화와 더불어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인적·경제적 손실 절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 GMP인증 획득

지난 해 과채가공품 HACCP인증 이어 쾌거...산지 농산물 가공생산 전초기지 역할 톡톡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센터장 박천우, 이하 색소센터)가 올해 들어 건강기능식품 GMP 시설 인증에 성공했다.

지난 해 동결건조 과채가공품에 대한 해협(HACCP, 식품위생안전관리인증 기준) 인증에 이은 쾌거로 산지 농산물 가공식품 전초기지로써 농촌 경제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색소센터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시설 인증을 획득해 GMP적용업소로 지정됐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의 제조 식품을 의미한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칭) 인증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



질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증표다.

이번 GMP인증 획득은 외부 컨설팅 업체의 도움 없이 센터 자체 인력으로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센터는 기존 동결건조기, 추출·농축시스템 등 대규모 제조라인을 활용한 일반 가공품 생산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산업 분야에도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

박천우 센터장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제품 상품화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기능식품 제조, 포장기 도입 구축 계획 등을 역점 추진해왔다”며 “GMP 인증은 그 첫 번째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016년 11월 개소한 색소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나주시의 재정투자로 설립된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기반시설이다.

동결건조, 추출·농축, 발효 및 분쇄에 포괄까지 식품가공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기계·장비 및 생산라인 구축에 기반해 가공제품 OEM 및 임가공, 자체상품 연구개발, 대규모 가공설비 임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센터 내에는 4개 업체가 입주해있으며 침·발효청과 같은 과일 가공품, 식물추출 영양색소, 생리활성물질 등을 생산한다.

지난 해 배·멜론·서리태 등 약 330톤의 나주시 농산물을 가공 생산했으며 지난 2년간 약 60여건의 시제품 개발 성과를 올렸다.

이 중 배 농축액과 배 부산물을 재가공한 배 석세포 등 자체상품 생산을 통해 지난 한 해 약 6억원의 판매고를 달성했다.

기동취재본부



명절 선물은 역시 ‘명품’ 장성 과일

사과·배·새싹삼부터 가공식품까지...온·오프라인 직거래

신축년 설 연휴를 앞두고 ‘과일의 고장’ 장성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오는 25일부터 사과와 배, 꽃감, 새싹삼 등 인기 특산물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촉행사를 갖는다.

명절을 맞아, 장성군은 총 25개 업체의 온라인 직거래를 지원한다.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각종 농특산물 인증을 받은 우수한 상품들이 소비자들을 만날 준비를 마쳤다. 군은 관련 내용을 수록된 카탈로그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장성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온라인 카탈로그도 게시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친환경업체인 ‘함마음공동체’와 ‘학사농장’이 참여

는 ‘실맛이 비대면 주문 직거래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광주 롯데마트(4개소)와 수완동 농협광주유통센터에서는 삼계농협의 사과가 판매되며, 남악유통센터에서는 백양사농협의 꽃감이 소비자를 만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의 우수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비대면 걷기 활성화 사업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운영 시작

담양군은 지난 22일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개발업체 ㈜스왈라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약이 생기면서 부족해진 신체활동 및 증가하는 비만율을 개선하고자 걷기앱을 통해 올바른 걷기와 일상생활 속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공식커뮤니티를 개설해 2월 중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매일 1회 챌린지를 통해 목표걸음 달성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걷기 실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가입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담양군 공식커뮤니티를 선택한 후 가입하면 된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한파 피해 최소화 사후관리 안내

곡성군은 6일부터 시작된 한파로 인해 관내 과수 재배농가의 동해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업기상관측시스템에 따르면 1월 6일 최저기는 -10.6℃를 시작으로 약 7일간 -10℃이하의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자)에서는 동해 피해 동향 파악을 위해 동해 조기관별 기술을 활용

하여 단감 외 6종 과수를 조사한 결과 체리 20%, 단감 45%, 참다래 50%의 피해율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피해받은 나무는 전정 시기를 늦추고, 평년보다 결과지를 많이 남겨야 하며, 동해로 인해 착과량이 적은 경우 평년 대비 비료량을 줄이고 도장지를 유인하여 수관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구례군, 맞춤형 스마트팜 사업 본격 추진

총사업비 15억원

구례군은 정부의 스마트팜 육성과 저탄소에너지절감을 키워드로 한 그린뉴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등 미래농업인력 육성과 연계한 시설채소 맞춤형 스마트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소득 특화작목인 오이, 애호박 등 시설채소에 맞춤형 생력화 스마트팜

적용으로 농업분야 신규창업 확산기업을 조성하고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를 통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농업인 임대용 스마트팜 온실 조성, 기초교육 아카데미 개설,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스마트팜을 육성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